



박상대 신임 IVI 후원회장 겸 이사장

“한국생명공학 발전 · 고용창출 · 외화유입 등 시너지 커”

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 본부인 국제백신연구소(IVI)의 수장이 바뀌었다. IVI의 후원회장 겸 이사장으로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돼 2월 19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. 생명공학 연구와 후진양성에 평생을 바친 후 국제백신연구 진흥을 위해 인생 2막을 시작한 박 박사를 만났다.

Q 원래 후원회장과 이사장이 분리돼 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직책을 합쳤습니다. 그만큼 권한이 막강해진 것입니까.

A 업무 효율을 위해 후원회장과 이사장을 겸하게 됐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.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곳이 아니라 후원을 부탁하는 자리라 오히려 어깨가 더 무겁다.

Q IVI 유치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.

A 1993년 교포과학자로부터 ‘유엔에서 백신관련 국제기구를 설립하려고 한다’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직하던 서울대 안에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신청서를 만들어 냈다. 그리고 당시 유치 현장에 있었는데, 6개국이 출사표를 내 막판에 중국과 경쟁하게 됐다. 중국은 당시 주몽지 총리가 IVI 소장의 저택 제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다. 그래도 유치위원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.

Q IVI가 서울대 캠퍼스에 자리 잡게 된 연유와 연구소 인력구성은 어떻게 됩니까.

A 백신과 관련된 분자생물학, 의학, 약학 등 분야의 고급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점, 도서관, 유전학연구소,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인프라의 구비 등이 고려돼 서울대 캠퍼스에 자리 잡은 것이다. 연구소에는 15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연구인력이다.

Q 외국에서 온 과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.

A 1997년 개소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존 클레멘스 소장을 비롯해 정상급 과학자가 현재 47명이다. 클레멘스 소장은 스탠퍼드대와 예일대를 나온 의학자로 노벨상에 상당히 근접한 거물이다.

Q IVI를 한국에 유치한 것 자체가 높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

있습니다.

A IVI를 이곳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. 70여 명의 과학자가 상주하면 이들을 옆에서 돕는 인력, 예를 들어 포스트닥, 대학원생 등 150명 정도를 붙여줘야 한다. 연구시너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. 또 운영비는 국내에서 조달하지만,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유입효과도 크다. 실제로 빌 앤 밀린다 게이츠재단은 지난 11년 동안 1억3천200만 달러를 쾌척했다.

Q 그 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해 주시죠.

A 설립 확정 직후 곧바로 I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연구소 건립은 자연스럽게 미뤄졌다. 1998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것이 2003년에 가서야 준공됐다. 서울대 연구원으로 오기 전까지 캠퍼스 안 자그마한 임시 연구소에 있었다. 그런 열악한 여건 아래에서도 콜레라 백신 1종, 장티푸스 백신 2종을 개발했다. 개발했다는 의미는 새롭게 만들었거나 있는 것을 조금 개량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. 논문도 한 500편 정도 발표했다. 에이즈 바이러스, 암 유전자 등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완벽한 차폐시설인데, 지난해 이 시설이 완공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

Q 지난 10여 년 이공계 기피, 이공계 홀대 현상이 심각하다. 과학자로 평생 살아오신 분으로 작금의 이공계 기피, 이공계 홀대 현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A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게 다를 수 있다.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에 밀려들어와야 한다.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에서 훌륭한 연구를 하고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. ㉔

글 | 윤재석_국민일보 논설위원 blest01@hanmail.net